

광주일보 보도 보고 이메일 보낸 5·18 당시 평화봉사단원 데이비드 돌린저 인터뷰

“피신 요청 거절...광주시민 위해 남았다”

18일부터 군인들 만행 목격
외국인과 함께 있는 시민 안때려
시위대와 동행하며 보호
민주주의 헌신 모습 잊을 수 없어
광주 경험에 관한 책 집필 중

“우리는 광주 밖으로 피신하라는 주한 미 대사관과 미국 평화 봉사단의 요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인들에게 탄압을 당하는 광주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남고 싶었습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과 함께 했던 미국 평화봉사단원 데이비드 돌린저(66·David Dolinger)씨는 광주일보에 지난 21일 이메일을 보내 이같이 밝혔다.

돌린저씨는 미국 평화봉사단원 관련 보도(광주일보 2019년 5월14일자 1면)를 접한 뒤 이메일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1978년 4월 동료 팀 완버그(Tim Warnberg·1993년 작고)씨와 한국에 온 그는 영암군 보건소에서 결핵환자 관리인으로 활동했다. 훗날 폴 코트라이트(Paul Courtright), 주디스 체임벌린(Judith Chamberlin)씨가 한국에 도착했으며, 이들과 함께 5·18을 경험했다.

돌린저씨는 “1980년 5월16일 햇볕행진이 광주에서 옛 전남도청까지 가는 것을 봤다”며 “5월18일부터 군인들의 만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지인의 결혼식 참석차 광주에 온 그는 5월18일 팀 완버그씨에게 계엄군의 진압 행태에 대해 들었다고 한다. 당시 팀 완버그씨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나병환자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었다. 팀 완버그씨는 다

른 광주시민들을 데리고 군인들과 최루탄을 피해 작은 상점으로 피신했고, 다행히 군인들은 외국인과 함께 있는 광주시민들을 때리지 않고 철수했다. 이런 일은 이후에도 수차례 반복됐다.

돌린저씨는 이메일에서 ‘attack’(공격) ‘viciousness’(사악함) ‘beat’(때리다) 등의 폭력성 단어를 사용하며 당시 광주 시민이 겪었던 참담했던 상황을 표현했다.

그는 “5월 19일 영암으로 돌아갔지만 민주주의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과 다른 평화봉사단원들이 격정돼 21일 걸어서 다시 광주에 왔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돌린저씨는 이어 “군인들이 우리(외국인 평화봉사단원)와 함께 있는 광주 시민들은 내버려둔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이 점을 이용해 우리는 각종 행사(시위)에서 광주 시민과 함께 있는 방식으로 군인들로

부터 보호했다”고 말했다.

돌린저씨는 5월27일 이후까지 광주에 머물며 외신 기자들에게 통역을 지원하는 등 5·18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 힘썼다.

5월24일 평화봉사단원들은 언론에서 접한 광주상황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해 돌린저씨나 폴 코트라이트씨 중 1명이 광주를 빠져나가 직접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논의하기도 했다. 당시 돌린저씨 보다 지리를 잘 아는 폴 코트라이트씨가 서울로 올라갔다.

돌린저씨는 현재 한국의 경험담을 책으로 쓰고 있으며 주로 광주와 5·18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오는 10월에는 현장 확인을 위해 광주를 방문할 계획이다.

돌린저씨는 “광주에서의 경험은 특별했다”며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했던 광주 시민들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5·18 참여시민, 재심서 39년만에 무죄

5·18민주화운동 시위에 참여했다가 처벌받은 시민이 재심을 통해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계엄법 위반·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안모(58)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안씨는 1980년 5월 22일 목포에서 시위군중 10여명과 시내버스를 충돌하고, 같은 날 오후 시위군중 10여명을 트럭에 태우고 운전하며 “비상계엄을 해제하라”, “김대중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불법 시위에 가담해 계엄사령

관 조치에 응하지 않았다고 기소된 뒤 1980년 10월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심 재판부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 전후에 발생한 한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참조했다. 유 판사는 “피고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 결과 등을 비춰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라면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수영선수 보려고 출입증 위조한 중국 여성 입건

광주광산경찰청 25일 수영선수권대회 출입증을 위조한 중국 국적 A(여·25)씨를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5시 30분경 광주시 광산구 남부대학교 주경기장 인근에서 위조한 출입증을 착용하고 경기장 내를 돌아다닌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중국 현지에서 위조한 출입증을 소지한 채 지난 20일 입국했다. 출입증에는 자신을 중국 공영 방송 리포터 신분인 것처럼 꾸몄다.

A씨는 자신이 평소 좋아하던 자국 여자 배영 선수를 가까이서 보기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위조한 출입증으로는 출입이 불가하자 입장권 여섯 매를 구매해 경기를 관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위조한 출입증을 착용한 채 중국 선수단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왔으며, A씨의 출입증에 이상함을 느낀 자원봉사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소녀상 조롱 청년들, 위안부 할머니 찾아가 ‘무릎 사과’

평화의 소녀상에 침을 뱉고 조롱한 청년들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직접 찾아가 사죄했다.

25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나눔의집 측에 따르면 20~30대 남성인 A씨 등 3명은 전날 오후 3시에 경기 광주시 나눔의집을 방문해 할머니들 앞에서 일제히 무릎 꿇고 고개를 숙였다.

이옥선 할머니는 “그게(소녀상) 길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추우면 목도리를 하나 갖다줬나, 여름에 뜨거우면 모자를 하나 씌워줬나”며 “가만히 앉아있는데 침 뱉기는 왜 침 뱉어”라고 이들을 강하게 꾸짖었다.

그러나 “앞날이 창창한 청년들”이라며 A씨 등을 용서해주겠다고 말했다.

A씨 등 3명이 전날 나눔의집을 방문하기에 앞서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1명은 이미 지난 20일 아버지와 함께 나눔의집을 찾았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자폐증이 있는데 교육을 못 해 죄송하다”며 할머니들에게 사죄했다.

A씨 등은 지난 6일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역 광장에서 소녀상에 침을 뱉고 영덩이를 흔드는 등 조롱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시민과 시비를 벌인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샀다. 이들은 조롱한 것에 더해 일본말로 “천황폐하 만세”를 외친 사실도 드러났다.

/연합뉴스

자전거 타고 가다 10대 여성 엉덩이 때린 외국인 대학생 벌금형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길을 걷던 10대 여자 청소년의 엉덩이를 때린 외국인 대학생이 벌금형

○2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2일 여수에서 일행 2명과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10대 여자 청소년의 엉덩이를 한차례 때린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A씨(22)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활동 80시간, 아동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1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는 것.

○재판부는 “어린 청소년의 엉덩이를 때려 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반성하고 있고,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이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국내에서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문화전당 몽골텐트서 더위 피해요” 광주지역 낮 최고기온이 32.6도를 기록하는 등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진 2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찾은 청소년들이 광장에 마련된 몽골텐트에 앉아 더위를 피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인사 부당개입 김승환 전북교육감 벌금형...직위는 유지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금고나 징역 등 자유형은 피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욱 대법관)는 25일 직권남용관리행위사형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2013~2015년 4차례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무평정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피어로 가면 공포 영상, 알고보니 노이즈 마케팅

피어로 가면을 쓴 남성이 원룸에서 택배를 훔쳐가는 모습이 담겨 네티즌들을 불안에 떨게 한 ‘유튜브’ 동영상(광주일보 2019년 7월25일자 6면)이 노이즈 마케팅으로 드러났다.

서울관악경찰서는 25일 해당 영상 게시자인 최모(34)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물 관리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거주자 최씨로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실제 도난피해는 없었고 내가 운영하는 택배 대리 수령 회사 광고영상을 만들어 올린 것이며 논란이 된 것을 알고 해명 영상을 올리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oticon PEOPLE FIRST

115년 전통의 덴마크, **오티콘 보청기**

광주지사 3주년 특별행사
062-364-8800

- ✓ 부담 없는 무료 청력 테스트
- ✓ 30일간 보청기 무료 테스트
- ✓ 배터리 1+1 추가 증정
- ✓ 청각 장애인 정부 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홈케어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고객님들을 위한
무료 가정방문 출장 서비스

4화성역 4번 출구 / 동성역 4번 출구에서 100m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5 1층 102호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